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17)

비신지능(非臣之能)

도가 높으면 마귀가 성해진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19는 우리에게까지 막대한 경제적 지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문대통령이 지방의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이때에 상인에게 경기를 묻자 ‘경기가 거지같다.’고 한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다. 식자들은 시장경제나 통제경제나를 두고 설왕설래 하지만 서민들은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왜 이리 나빠졌는지를 설명하는 말들은 많지만, 서민들은 그 설명에 그다지 관심은 없고 오직 피부로 느끼는 체감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반찬가게 주인의 ‘경기가 거지같다.’는 말은 그동안 거론되었던 청년실업문제, 종소자영업자의 우수성, 늘어가는 실업자 수, 세금으로 때우는 경기부양의 문제, 일을 적게 하자는 주 52시간제 같은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 같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서민들이 경제가 얼마나 나쁘게 느꼈으면 이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 표현할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나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도 절대 왕권을 누리던 제왕이 몰락하고 왕조가 바뀌는 내면을 보면 보통 겉으로 드러난 정쟁, 세력다툼에 원인에 두지만, 결국 이러한 다툼의 밑바닥에는 재부를 둔 쟁탈전이고, 때문에 서민들이 먹고 살길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북송시대에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던 시기가 있었다. 송태조 조광윤이 송황조를 건설하고 70여년을 지내 오면서 송은 요(遼)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요와 화의하는 조건으로 요에 매년 전백(錢帛)으로 30만씩을 지불하였다. 또 보잘 것 없다고 했던 당황족의 서하(西夏)와 전쟁을 하다가 간신히 화의(和議)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건국초기에 가졌던 경제적 자신감은 없어졌다. 송 초기만 해도 요와 대결하면서 송의 경제력으로는 요의 군사들을 몽땅 매수할 정도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된 것이다.

이제 군비가 어려워서 하다못해 후궁(後宮)들까지 주머니를 털어서 군비(軍

費)를 보태 쓰라고 내 놓다. 그러니 전비(戰費)를 대느라고 등뼈가 훈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다. 남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중부에서도 일반 백성도, 군인도 반란을 일으켰다. 설사 가까스로 반란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송황조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시 황제인 송 인종은 고민하였다. 나라가 없어지면 황제가 제일먼저 죽어야 했으니 그렇지 않겠는가?

결국 인종은 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면서 한 조치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다. 왕요신(王堯臣, 1003~1058)을 재정총책임자인 삼사사(三司使)로 임명한 것이다. 왕요신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보통 관원들과는 달리 양심적이고 깨끗한 인물이었다.

왕요신은 임명되자 황제에게 “지금 나라와 백성이 모두 피폐 되었는데 폐하게 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뜻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임명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리고 일할 요속(僚屬)을 자기가 뽑게 해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자 눈치 빠른 환관(宦官)인 장화영이라는 사람이 재정을 확충할 계획으로 민방전(民房錢), 즉 세(貲) 받는 돈에서 30%를 세(稅)로 걷으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 바로 크게 쓰일 것이요.”라고 하여 자기 말을 들으면 출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을 은근히 비치었다. 또 교활한 환관 장화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勢)를 가지고 왕요신 바로 밑에 있는 부사(副使)를 찍어 놀렸다.

하지만 왕요신은 장화영의 방법은 당대에 이미 실시해보았다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뿐 만 아니라 장화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사를 잘라 버렸다. 권력자 환관에게 감히 도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세금을 걷기 좋은 소금에 세금을 더 붙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 이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이어서 결국 세금 낼 사람을 줄여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다. 대신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권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세금을 거두었으니, 서민은 살리고 특권층을 누르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3년을 추진하니 재정이 안정되었다. 왕요신이 살던 시대가 비록 왕정시대였지만 ‘백성은 물이고 제왕은 배라’는 고전적인 원리를 잘 알고 시행하였다. 요즈음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은 물이고 정부는 배라’는 입장에서 존재하는 것이니 크게 보면 다를 것이 없다.

그 사이에 왕요신을 포함하는 온갖 이야기가 황제에게 들어갔고 유언비어도 난무하였지만 인종은 이를 덮어두고 왕요신을 적극 밀어 주었다. 그래서 왕요신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여간 왕요신은 일을 맡고 3년이 되자 자기 할 일이 어느 정도 끝내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하였다.

왕요신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자리에서 인종황제는 그에게 수고하였다고 치하(致賀)하였다. 이 말은 들은 왕요신은 우쭐할 만도 한데 그 대답은 ‘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오직 폐께서 신을 믿고 채용하시었을 뿐입니다.’라는 것이다. 황제가 왕요신이라는 도구(道具)를 잘 고른 것이니 재정 위기를 벗어나게 한 공로는 황제에게 있다는 것이다.

송의 인종은 도구인 신하 한 사람을 잘 끌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기가 거지같은’ 이 시대를 구(救)하여 대한민국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할 사람은 누구일까? 황제 전권(專權)시대에도 인종황제는 국정의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적절한 시립에게 일을 맡겼는데,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을 가운데 내 책임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남만 탓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여 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배고픈 것을 없앴는데, 지금에는 거지같은 경제라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찌 될꼬? 또 우리 후손들은 어찌 할꼬?

한국과 중국의 성씨와 본관제도

2000년도에 통계청에서 전국 성씨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 한국 사회에는 총 286종의 성씨와 4179종의 본관이 존재(통계청, 2000 인구주택조사, 성씨 및 본관 보고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1년 중국에서 출판된 한 성씨 관련 사전에 따르면 중국에는 총 8155종의 성씨가 존재할 뿐 본관에 대한 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양만방편, 성씨사전, 하남인민출판사, 1991) 즉 다시 말해 전통시대 중국사회에서 본관은 해당 인물의 본적지를 의미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본관은 해당 인물의 본적지가 아닌 해당 인물이 속한 씨족의 ‘원조(遠祖)’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남자들이 ‘씨’만을 사용하고 ‘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시기의 남자들도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이름 앞에 ‘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씨’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중국에서 본관이 서로 다르게 된 원인은 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사회는 삼국시대 이후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발달하였으나, 당나라 말기에 와서는 이러한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문벌을 논하는 의식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중국과 같은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송나라 학자인 정초의 씨족학(氏族略)을 보면 중국의 성씨제도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상·주 시대에는 ‘성’과 ‘씨’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이름과 함께) ‘씨’를 사용하였고 여자는 ‘성’을 사용하였다. 이른바 ‘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름과 함께 ‘씨’를 사용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만 있었었다. 하지만 주나라 멸망 후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과 씨를 구별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성’과 ‘씨’를 합하여 ‘성씨’라 부르게 되었으며 ‘성’이나 ‘씨’ 모두 서로 간의 동일한 씨족 여부를 판단하고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방식인 이른바 지방(地望)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게 되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씨’라는 개념보다는 ‘성’이라는 개념이 먼저 출현하였고 이 ‘성’을 사용하는 집단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으며, 이 집단은 규모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극소

수의 집단이 자신들끼리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성’을 사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성’만으로서 서로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자 같은 ‘성’ 안에서 또다시 서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씨’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상주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과 ‘씨’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여자들은 ‘성’을 칭하여 소속 씨족을 드러내고 남자들은 ‘씨’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남자들이 ‘씨’만을 사용하고 ‘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시기의 남자들도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이름 앞에 ‘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씨’를 사용함으로써 자신

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나라 사족들은 그 원조가 현달한 자들로 (그 본관자를 벗어나) 서울에 살기도 하며 혹은 (본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세대 수로는 수십 세로 해 수로는 수백 년, 수천 년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증손 대에는 비록 그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본관지에 따라 (지리지에) 수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세대가 멀어진 후손의 경우에는 본관지로부터 아득히 멀어져서 평생 동안 그 본관지라는 곳을 찾아가 단 한 번도 발을 딛어 보거나 또 구경조차 해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의 출신 인물 인연 수록한다면 그 지역의 지도와 고적을 살펴보고 그 지역 출신인물을 논하려는 지리지 편찬의 의도와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의 사족들은 대부분 본관을 벗어나 다른 곳에 정착한 지가 이미 수백년 또는 천 년이 되어도 본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다. 본관제도는 중국문화와 함께 다른 한국문화의 특징임에 틀림없다. 어진 정치(仁政)는 한 세대면 펼칠 수 있지만 예약문명은 100년은 죽지 걸려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본관제도는 1000년의 역사가 지나도 그대로이다.

출처 : 최근 고전번역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안광호박사의 <중국의 군망제도와 한국의 본관제도 연구>라는 흥미로운 책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편집국장 경행완

전국 대리점 모집

당사에서는 친환경농축산제품업계를 이끌어갈 동반자를 찾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실 모든 점주님을 환영합니다.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PLS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맞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 시행되어 축산농가

에서는 약취저감을 위한 친환경축산제품을 사용 해야 하는 고민거리를 안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친환경농축산제품은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축사 돈사 계사 등의 축산시설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으로 농축산농가의 고민을 한방에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51(오창3산업단지)

T. 043-716-0073 F. 043-716-0074

E. jb0073@joybio.co.kr w. www.joybio.co.kr

대표이사 / 회장 권 광 택



조이 바이오(주)